

질병관리청장,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현장방문

-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검역 현장 점검
- 국가 방역의 최전선으로 검역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월 4일(목),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 현장을 방문하여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및 우간다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 ▶ (일시/장소) '26.6.4.(목), 14:20~17:00,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 (참석대상)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윤현덕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등
- ▶ (주요내용) 에볼라바이러스병 유입 대비 해외감염병 검역 현장 점검 등

이번 현장 방문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관리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한 실제 검역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증가에 따른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5.17.),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는 아프리카 대륙 공중보건비상사태(PHECS)를 선언(5.18.)하였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현황, 6.1. 기준) DR콩고·우간다 확진 291명(사망 43명), 의심 환자 220명

이에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책반을 구성(5.17.)하고 아프리카 발생국가(DR콩고, 우간다)와 인근 국가(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5.26.)하여 검역을 강화하였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지자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국내 직항편이 있는 에티오피아 입국자는 전수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하여 제3국 경유 입국자는 타겟 검역*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DUR-ITS)을 통해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DR공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출발 입국자 사전 확인 → 대상자 확인 시 검역 정보 공유 → 게이트에서 입국자를 선별하여 검역조사(개인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현장 방문에 앞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회의실에서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발생 감시동향, 24시간 상황 관리, 국가별 검역 대응 동향 및 그간 검역 조치 점검,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 대응 등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동향과 각국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유입 차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검역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국가방역의 최전선으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며, “사회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검역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임할 것”을 현장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옥수 (043-719-9200)
		담당자	사무관	윤미라 (043-719-9201)
			주무관	이승한 (043-719-9202)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민유정 (043-719-9100)
		담당자	연구관	차정옥 (043-719-9130)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	책임자	과 장	곽은교 (032-740-3421)
		담당자	역학조사관	김다슬 (032-740-3416)